

경기도 신도시 지역 인문계 고교 입시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교육목표는 학생에게 빠른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많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지식의 수명이 갈수록 단축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의 교육 목표는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보로 만드는 창조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평준화된 경기도 고교입시는 아직도 중학생에게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의 유일한 기준의 내신성적이어서, 자신의 관심과 소질, 적성과 무관하게 중학교 12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보다 높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에 얽매어야 하고, 각 과목 교사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행평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부모 숙제를 대신해주는 일은 다반사이고 수행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학원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제도의 교육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고교 입시가 평준화되면 고등학교 학생 성적이 떨어진다는 오해와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왔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25년동안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조사했지만 평준화가 학생들의 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평준화 지역인 수원과 비 평준화 지역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 고교 입시 성적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조사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평준화 지역인 수원 지역의 성적 향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고입성적과 대입성적 비교 >

| | 년도 | 급 간 | 수 원 | 안양지역 | | 년도 | 급간 | 수 원 | 안양지역 |
|------------------------|-----|--------|------|-------|----------------------------|-----|--------|------|------|
| 고등학교 연합 고사 성적 | 96년 | 180점이상 | 82명 | 650명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 96년 | 150점이상 | 421명 | 318명 |
| | | 170점이상 | 363명 | 1665명 | | | 140점이상 | 930명 | 690명 |
| | 97년 | 180점이상 | 73명 | 920명 | | 97년 | 150점이상 | 276명 | 261명 |
| | | 170점이상 | 311명 | 1669명 | | | 140점이상 | 617명 | 614명 |

* 97년 입시까지 대학 수학 능력시험은 200점 만점.

* 140점이상이면 서울 명문대 진학가능

끝으로 교육비전 2002에 따라 바뀐 대학입시에서는 지필고사 위주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또는 교과 점수의 비중을 현격히 줄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중시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잘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고, 고교 추천 입학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학교간 등급제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성적이 낮은 학교의 내신성적이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내신상의 불이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무시험제도하에서 비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교 입
시 평준화 제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80%이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 #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부천 지역 고교 입시 평준화 실시
- #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 입시 평준화가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
- # 교육청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 구성
- #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